



제07-50호

## 아프리카 개발은행 신탁기금 현황과 시사점

권 올 세계지역연구센터 국제개발협력팀 팀장 (ykwon@kiep.go.kr, Tel: 3460-1060)

정지선 세계지역연구센터 국제개발협력팀 연구원 (jsjeong@kiep.go.kr, Tel: 3460-1078)

### 주요 내용

- ▣ 아프리카 개발은행(AfDB: African Development Bank)은 지난 2007년 12월 7일 신탁기금(trust fund) 운용을 포함하여 이사회(Board of Directors) 승인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제안서를 발표함.

  - AfDB는 다른 국제개발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행정체제, 비효율적 운영절차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승인절차 간소화 제안이 받아들여지면 향후 신탁기금 운영체제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임.
- ▣ 최근 아프리카와의 경제협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국정부는 2007년 10월 500만 달러 규모의 한·아프리카 경제협력(KOAFEC: Korea Africa Economic Cooperation) 프로그램식 기술협력 신탁기금을 추가로 출연한 바 있음.

  - 국제개발은행(MDB)을 통한 다자간 원조로서 AfDB에 공여된 신탁기금은 한·아프리카 경제협력과 한국의 개발경험 전수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아프리카 지역을 대상으로 한 정책 컨설팅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 ▣ 아직 다자간 원조 실적이 미미한 한국은 AfDB와의 협력을 통해 개도국의 빈곤 퇴치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뿐 아니라, 우리 ODA의 질적 수준 개선과 선진 원조체제의 경험 및 기술 습득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앞으로 AfDB의 신탁기금 개선 프로그램이 점차 확대될 전망인바, 신탁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조달시장 참여율을 제고해야 할 것임.

## 1. 머리말

- 아프리카 개발은행(AfDB: African Development Bank)은 지난 12월 7일 소규모 신탁기금(trust fund) 등 주요 사안에 대한 이사회(Board of Directors) 승인절차 간소화를 위한 제안서를 발표함.
  - 이는 이사회 사전논의를 요하는 기존의 복잡한 승인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운영상 효율성 제고와 공여국의 신탁기금 운용에 대한 보다 신속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어서 향후 AfDB 사업 추진의 효율성 제고와 업무 개선이 기대됨.
  - 특히 이번 제안은 기존 신탁기금의 문제점에 대한 개혁 프로그램(TCFR: Technical Cooperation Fund Reform Programme)과 함께 효율성 제고 및 국제사회 기준에 대한 조화를 위해 노력하는 AfDB의 개혁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임.
- AfDB를 통한 한국의 대(對)아프리카 원조는 그동안 미미한 수준이었으나, 2006년 3월 아프리카 이니셔티브 이후 아프리카와의 경제협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지난 10월 15일 500만 달러 규모의 KOAFEC 프로그램식 기술협력 신탁기금을 추가로 출연함.
  - 인프라 및 천연자원 관리, ICT,<sup>1)</sup> 경제개발 경험 전수, 인적자원 개발(HRD)의 4대 우선 분야에 대한 협력을 목표로 하는 KOAFEC 신탁기금은 기술협력 신탁기금 개선 프로그램에 준하여 운영될 예정임.
- 최근 한국 대외원조의 선진화를 위해 국제개발은행(MDB: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sup>2)</sup>을 통한 다자간 원조, 특히 무상원조로 공여되는 신탁기금(trust fund) 출연을 통해 우리 ODA의 질적 수준을 개선하고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는 데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 선진 공여국들의 경우 다자 원조기구에 대한 기금 출연을 통해 새천년 개발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달성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음.
  - 아직 다자간 원조 실적이 미미한 한국은 MDB와의 협력을 통해 개도국의 빈곤 퇴치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뿐 아니라, 이를 선진 원조체제의 경험과 기술을 습득하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음.

1)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2) 국제개발은행이란 경제개발 자금을 지원하는 국제금융기구로 세계은행 그룹(World Bank),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African Development Bank), 아시아개발은행(ADB: Asian Development Bank),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및 미주개발은행(IDB: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을 포함하며 다자간개발은행이라고도 불림.

- 국제개발은행의 기술협력 자금은 목적에 따라 기술자문용역을 위한 컨설턴트 신탁기금과 특정 주제 및 분야에 대한 프로그램식 신탁기금으로 나뉘는데, 기존에는 컨설턴트 신탁기금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전략적 주요 부문을 설정한 프로그램식 신탁기금으로 전환하는 추세임.
- 기금 형성 참여주체의 수에 따라 단일국가 신탁기금, 다자출연 신탁기금으로 나뉘고,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을 공여국 등 이해관계자에 연계하는지 아닌지에 따라 타이드(tied) 신탁기금과 언타이드(untied) 신탁기금으로 나뉨.
- 공여국 간의 조화와 협력, 수원국 주인의식 제고 등을 중시하는 최근 국제사회의 흐름에 따라 다자출연, 언타이드 신탁기금이 선호되고 있음.<sup>3)</sup>
- 한국은 2007년 9월 말 현재 세계은행, 미주개발은행, 아시아 개발은행, 아프리카 개발은행에 약 1억 6,350만 달러의 신탁기금을 기탁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경제협력의 새로운 파트너로 전략적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아프리카 지역의 국제개발은행인 AfDB의 경우 아직 참여율이 낮고 신탁기금 운용에 대한 정보도 부족한 상황임.
- 2006년 대통령 아프리카 순방 이후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한국 이니셔티브” 발표와 함께 KOAFEC 등을 통해 한국의 경제개발 경험 공유와 한·아프리카 간 경제협력의 토대 마련에 대한 적극적 논의가 진행됨.
- 중국, 미국, 일본의 경우 아프리카와의 경제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미 협의체를 운영 중이며 특히 중국은 적극적인 원조사업으로 AfDB 원조조달 계약에서 높은 수주율을 보임.
- 한국은 과거 아시아 위주의 원조로 대(對)아프리카 무상원조는 10.8%에 불과하고 유상원조 역시 전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지원 중 10.6%에 그침.
- 이에 본고에서는 AfDB가 최근 적극 추진하고 있는 기술협력 신탁기금 개선 프로그램과 신탁기금 운영 현황, 원조조달 시장에서 국가별 수주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대(對) AfDB 신탁기금 운용에 대한 시사점과 전략적 방향성을 도출하고자 함.

3) 「2005 원조 효과성 제고에 대한 파리선언(Paris Declaration on Aid Effectiveness)」에서는 수원국의 주인의식(ownership), 수원국 개발전략에 공여국 원조의 일치(alignment), 공여국 간 원조활동의 조화(harmonization)를 통한 원조의 질적 향상과 효과 증진을 강조함.

## 2. AfDB 신탁기금 운영 개요

- 1964년 설립된 아프리카 개발은행은 아프리카 개발기금(ADF: African Development Fund), 나이지리아 신탁기금(NTF: Nigeria Trust Fund)과 함께 아프리카 개발은행 그룹(African Development Bank Group)에 속함.
- AfDB는 아프리카 지역의 빈곤 퇴치를 위해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개발을 목표로 하는 다자간 지역개발 금융기관으로 53개 아프리카 지역회원국(RMCs: regional member countries)과 24개 비지역회원국(non-RMCs: non-regional member countries)이 주주로 참여하고 있음.
- AfDB의 기술협력 신탁기금은 2006년 중순을 기준으로 총 25개가 있고, 지역회원국을 위한 개발프로젝트 재정 지원과 역량강화를 위한 장단기 컨설팅 활동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음.
- AfDB 내의 신탁기금 관리·운영 담당 부서로는 기금모금협력부(Resource Mobilization & Partnership Unit), 재무부(Treasury Department), 재정관리부(Financial Control Department) 등이 있음.

표 1. AfDB 신탁기금 관련 부서

부서	담당업무
자금운영협력부	- 자금 관리 및 사업별 배분 - 각 사업별 계약서 규정·조건 준수 여부 확인 및 감시 - 자금 사용 부서와 협력하에 자금 사용, 사업 현황 진행 보고서 작성
재무부	- 기금별 계좌 개설 - 각 기금별 재정 관리 및 자금 투자
재정관리부	- 재정보고서 작성
프로그램예산부, 재정관리부, 자금운영협력부	- 재정 관련 상세내역 관리
감사부	- 대내외적 감사활동 준비
조달재정관리부	- 기술협력기금 자금으로 고용한 컨설턴트 정보 제공
법무부	- 계약서 작성

자료: AfDB(2006), Memorandum, Proposal for Technical Cooperation Fund Reform at the African Development Bank.

- 기존 신탁기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단일국가 일반 신탁기금의 경우 행정과 지출 측면에서 효율성과 신속성을 저해하는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의 해소를 위해 AfDB는 '아프리카 개발은행 3개년 전략기획' 을 마련, 신탁기금 제도 및 절차의 간소화, 표준화 및 조화의 원칙에 따른 개혁을 추진하고 있음.
- 이는 다른 국제개발은행과의 조화 및 수원국 이익 강화라는 국제적 추세에 협력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기도 함.

### 3. AfDB 신탁기금의 특징과 개선안

#### 가. 현 신탁기금 체제의 특징과 문제점

- 그동안 AfDB의 기술협력 신탁기금은 대부분 타이드로 운용되어 왔고, 특정 부문 및 사업에 제한되어 있는 등 복잡한 공여조건과 맞물려 취약한 행정체제, 복잡한 회계요건 등으로 인한 집행부서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옴.
- 기금별로 대상국, 부문, 사업절차, 조달 물품 및 용역 형태, 공여국 사전승인액, 투자 소득 및 비용 회수, 보고 및 감사 의무 관련 규정에 대한 공여조건이 복잡하고 상이함.
- 공여국 컨설턴트 고용에 대한 타이드 조건은 컨설팅비 상승과 함께 공여국·특정국가 내에서 책임자를 찾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지출과 사업 시행을 늦어지게 하여 기금 운영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저해함.
- 기존에 기탁된 25개 신탁기금 중 4건은 완전 타이드, 13건은 부분적 타이드, 완전 언타이드 조건은 8개에 불과함.
- 현재 행정비(administration fee)는 기금 규모나 규정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전체 기금의 0~5% 정도를 책정, 일정한 기준이 없는 상황이나 복잡한 공여조건 등으로 행정비 부담이 계속 가중되고 있음.
- 대부분의 신탁기금은 지출시 이사회의 사전논의를 포함한 승인절차를 거쳐야 해서 신속한 의사 결정과 공여국 요구에 대한 대응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임.

- 현재 일부 신탁기금은 이사회 사전논의 없이 진행된 후 일정 기간 내 이사회 소속 멤버가 반대하지 않으면 승인 되는 방식<sup>4)</sup>을 따르나, 여전히 많은 신탁기금을 포함한 대부분 사안에 대해 이사회가 사전승인을 하고 있음.
- 2006년 이사회는 40여 차례의 공식·비공식적 회의를 통해 총 38개의 차관, 증여자금, 최빈국 부채경감 자금건에 대해 승인함.<sup>5)</sup>
- 결과적으로 신탁기금의 낮은 지출(low disbursement rate) 및 사업 시행 지연과 적절한 보고 체제의 부재에 대한 공여국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으며 일관성 없는 자금운용과 낮은 IT 활용도 역시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음.

## 나. 개선방향

- AfDB는 위와 같은 문제점의 개선을 위하여 기술협력기금 개선 프로그램<sup>6)</sup>을 마련하여 정책과 절차상 개혁을 추진함.
- 2006년 9월 상임위원회에서 공식 비준된 기술협력기금 개선 프로그램(TCFR: Technical Cooperation Fund Reform Programme)은 복잡하고 일관성 없는 공여조건, 언타이드, 느린 행정절차, 비효율성 등의 고질적 문제점 개선을 위해 도입됨.
- 기관 차원에서 매 연도별 목표를 설정한 후 3년에 걸쳐 목표 달성을 추진하는 점진적 개혁을 추구함.
- 표준화(Standardization), 간소화(Simplification), 일치(Alignment)의 3대 원칙을 토대로 함. 특히 일치(Alignment)는 「2005 원조 효과성에 대한 파리선언」의 5대 원칙 중 하나로서 수원국 개발전략에 대한 원조 일치, 수원국의 시스템 및 절차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함.

4) approval on a lapse-of-time basis.

5) AfDB Annual Report 2006에 의하면 이사회는 또한 성과 위주 국가전략보고서(Results-Based Country Strategy Papers) 8건, 국가논의보고서(Country Dialogue Paper) 4건, 긴급구호 지원자금(Humanitarian Emergency Assistance Grants) 11건, 정책·프로그램 관련 문서 23건을 검토하여 승인함.

6) 2006년 9월 상임위원회에서 공식 승인된 기술협력기금 개선 프로그램은 모든 기술협력기금의 정책과 절차에 대한 기관 차원의 개선 가이드라인임.

**표 2. AfDB 신탁기금 개선 3대 원칙**

원칙	상세 추진 방향
표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타이드 조건, 행정비, 공개정책, 감사, 재정보고 관련 공통계약서 틀 마련</li> <li>- 다자출연 프로그램식 기금의 경우 타이드 조건, 행정비 뿐 아니라 다자간 협력의 기본 거버넌스, 사무국 비용 재원 충당에 대해 이미 표준화된 계약서 사용</li> <li>- 최소기탁금, 원가회수 규정도 도입추진</li> </ul>
간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부 지원 절차 간소화</li> <li>- 기금 설립 요청, 승인, 지불 허가 자동화를 통한 신속성 강화</li> <li>- I.NET 도입을 통한 공여국과의 웹기반 정보 공유</li> <li>- 연중 특정 시기에 일괄적 공여국 승인</li> <li>- 공동협력부서의 조직 및 인력의 합리적 개편</li> </ul>
일치 <sup>7)</s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일국가의 일반신탁기금 보다는 다자출연의 수자원, 위생, 거버넌스 등 핵심목표만을 위한 프로그램식 신탁기금으로 전환</li> <li>- 기획 및 예산과정에서 신탁기금을 포함한 자금을 배분하고 시행부서에서는 해당 자금 사용을 사전 기획</li> </ul>

자료: AfDB(2006), Memorandum, Proposal for Technical Cooperation Fund Reform at the African Development Bank.

**1) 정책상 개선 방향**

- 정책상 개선은 다자출연 프로그램식 신탁기금 장려, 언타이드 조건, 표준 행정비 책정, 최소 신탁금/사전 승인금 규정의 방향으로 추진함.
- 참여 공여국은 공통의 프로그램, 목표, 목적, 절차에 대한 공동협약서를 체결함.
- 각 파트너 기탁금을 하나로 모아 프로그램 사업재정 충당용 공동 기금을 형성함.<sup>8)</sup>

**표 3. AfDB 신탁기금 정책상 개선 방향**

원칙	추진 방향 및 내용
다자출연 프로그램식 신탁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여 공여국은 공통의 프로그램, 목표, 목적, 절차에 대한 공동협약서 체결</li> <li>- 조사·평가 가이드라인 및 절차, 재정보고 체계의 합의 및 수립</li> </ul>
표준 행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 기탁금의 최소 5%</li> <li>- 기금 관리의 질적 향상 및 이를 위한 절차 개혁에 필요한 행정비 부담 경감</li> </ul>
최소 기탁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소화와 소규모 기탁기금 운영에 대한 업무부담 경감 목적</li> <li>- 단일국가 기금은 최소 100만 달러, 다자출연 기금은 최소 200만 달러</li> </ul>

7) 연 2회 열리는 국제개발은행 신탁기금 운영에 대한 라운드 테이블(MDBs Rountable on Trust Fund Administration)에서도 신탁기금 정책과 운영의 일치성을 주요 의제로 논의함.

8) 여러 파트너가 공통의 기금을 형성하는 다자출연 기금의 특성상 특정 공여국의 이익을 위한 타이드 원조 조건은 포함될 수 없음.

**표 3. 계속**

원칙	추진 방향 및 내용
사전승인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별 원조사업에 대해 공여국 사전승인을 요하는 최소금액</li> <li>- 일반기금 10만 달러, 다자출연 기금의 경우 50만 달러</li> <li>- AfDB 대행권한 강화 및 기금운영 및 집행의 효율성 강화</li> </ul>
언타이드 <sup>9)</s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6년 12월 31일까지 최소 40%, 3년 후 100% 언타이드를 목표로 함.</li> <li>- 공여국이 100% 언타이드 조건을 원하는 경우 적극 장려</li> <li>- 타이드 기금분을 이용한 RMC 컨설턴트 우선고용 3년 개혁기간 동안 허가</li> <li>- 모든 컨설턴트 데이터베이스의 SAP 통합을 통한 균등한 기회 제공 및 온라인 등록·지원의 용이성 강화</li> </ul>

자료: AfDB(2006), Memorandum, Proposal for Technical Cooperation Fund Reform at the African Development Bank.

- 다자출연 프로그램식 신탁기금은 특정 주제에 대한 공통 관심사를 가진 공여국 간의 파트너십과 조화를 중시하는 국제적 원조 동향의 일환임.
  
- 언타이드가 실질적으로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수원국 역량 강화 지원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AfDB는 지역회원국의 산업을 평가하여 취약점을 파악하고 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제안할 예정이다.
  
- 선진 공여국 컨설턴트에 비해 원조 프로젝트 참여 경험과 역량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 수원국 컨설턴트의 경우 국제 경쟁입찰에서 상대적으로 수주율이 낮을 수밖에 없음.
  
- 사전승인액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는 개별 원조사업 시행을 위해 매년 공여국의 승인이 필요하여 지출의 지연과 공여국의 지나친 감독으로 인한 비효율성이 발생함.

**2) 절차상 개선 방향**

- 개선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법적 기반, 행정, 기술평가 절차, 기금 모금·사용, 공여국 보고, 원조조달 절차, 재정 운영·관리, 감사, IT 이용, 모니터링·평가, 성과지향 운영의 11개 분야에서 절차 개선을 병행 추진함.

9) 2005 파리선언에 의하면 언타이드 원조는 파트너 국가의 조달비용 절감 및 수원국 주인의식과 조화의 제고를 통해 원조의 효율성을 강화함.



표 4. AfDB 신탁기금 절차상 개선 방향

분야	상세 추진 방향
법적 기반	- 25개 기금 각각 양자간 기술협약(Bilateral Technical Cooperation Agreement)을 일관된 정책과 절차의 표준협약(Standard Framework Agreement)으로 변경 - 다자출연 기금을 제외한 모든 신탁기금에 적용
행정	- 각 기금 운영부서(Operations Complex)에 코디네이터(Coordinator) 지정, 담당자 간 협력을 강화 - 사전 연간계획 작성을 통해 체계적인 기금 운영과 질적 제고
기술평가 절차	- 연관부서 대표를 포함하는 기술평가위원회(Technical Review Committee)를 조직, 기금 운영자금 관련 요청 심의
기금 모금·사용	- 전략적 우선 부문 위주의 프로젝트 절차(project cycle) 사업과 프로그램식 다자출연 위주 기금 모금, 사용에 대한 공여국과의 집중 협의 <sup>10)</sup>
공여국 보고	- 최근 사업 정보, 양자간 기금 핸드북, 협약서, MOU, 연간 상황보고서 및 재무제표의 I.NET상 공개를 통한 정기적 기금운영 보고 <sup>11)</sup>
원조조달 절차	- 온라인 컨설턴트 등록 시스템 간소화, 통합 컨설턴트 모집·관리 시스템 도입, 사업기회세미나 <sup>12)</sup> 활성화를 통한 개별 컨설턴트 및 컨설팅기업의 조달 참여 장려
재정 운영·관리	- 분기별 재무제표의 지속적인 공여국 전달 - 공여국 요청 시 연간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 감사 실시 - 통합 내부관리틀 <sup>13)</sup> 에 신탁기금 재정보고 포함
감사	- 감사의 종류, 빈도, 운영 및 재원 충달에 대한 정책 마련 - 주기적 내부 감사평가 실시로 초기 목표 달성여부 체크
IT 활용	- 웹기반 지원·승인 시스템, 공여국 센터(Donor Center) 엑스트라넷 도입와 이를 통한 연례진행보고서 전달, 온라인 보고틀 개발, 적극적인 SAP 활용
모니터링·평가	- 구체적인 투입, 결과, 성과 및 중간·최종 목표에 기반을 둔 모니터링·평가틀 마련 - 매년 이에 대한 진행 상황 및 단점 파악, 수정 작업
성과지향 운영	- 로그프레임(log frame) 방식의 프로젝트 평가(Project Appraisal) - 기금 구성, 요청 작성, 승인절차상 확인, 시행, 사후관리, 모니터링 및 보고의 성과지향적 운영

자료: AfDB(2006), Memorandum, Proposal for Technical Cooperation Fund Reform at the African Development Bank.

- 최근 이사회 승인절차 간소화 제안의 경우 신탁기금의 지출을 위한 프로젝트, 프로그램 및 기타 활동에 대해 이사회의 승인을 요하는 기존 절차를 간단하게 하고자 하는 것임.

10) 운영위원회는 정기적인 감사를 통해 신탁기금이 전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  
 11) 신탁기금 운영상황에 대한 공여국 보고 등의 목적으로 현재 구축 중인 통합 인트라넷.  
 12) 온라인 컨설턴트 등록 시스템(DACON: Bank's Website based Data on Consultants), 통합 컨설턴트 모집·관리시스템(ICRMS: Integrated Consultants Recruitment&Management System), 사업기회세미나(Business Opportunity Seminar).  
 13) Integrated Internal Control Framework.

- 이사회는 일반 프로젝트, 프로그램보다는 정책 및 전략 관련 핵심이슈 논의에 핵심역량을 집중시키고 공여국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는 등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음.
- 기술협력 신탁기금 개선을 위해서는 보다 자유로운 기금 운용 허용, 신속한 승인절차, 기금 운영 관련 의사결정과정에서의 빠른 답변과 분권화 등 공여국 측의 협력도 필수적임.

### 3. AfDB 신탁기금의 규모와 현황

#### 가. 신탁기금 종류와 규모

- 2006년 7월 기준 AfDB에 운영하는 신탁기금은 총 25개이며 출연조건은 100% 타이드에서 완전 언타이드까지 매우 다양하지만 최근 언타이드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임.
- 신탁기금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는 일반 신탁기금과 특정 목적 및 부문에 한정된 신탁기금이 있으며, 지역은 대개 지역회원국(RMCs)을 선호함.
- 기금 관리에 있어서는 AfDB가 기금 출연국에서 기금운영을 위임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포르투갈만이 예외적으로 직접 신탁기금을 관리·운영하고 있음.
- 원조주체별로는 아직 기존에 만들어진 단일국가 신탁기금이 다수이나, 원조에 있어서의 조화 및 파트너십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다자출연 신탁기금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음.

표 5. AfDB 일반신탁기금 현황

출연국	기탁기금	잔고	통화	협정체결	타이드 조건	선호 부문
오스트리아	100만	99만 1,000	Euro	2005년	75%	위생, 환경, 재생에너지, 교통
벨기에	160만	92,239.94	Euro	1990년	50%	보건, 교육, 농업, 여성개발, 인프라, 훈련, 민간부문개발
캐나다 CATF	500만	-	CA	2001년	75%	환경, 보건 인프라, 교육, 거버넌스
중국	200만	125만	USD	1996년	90%	여성, 개발 및 모든 부문
덴마크	1,500만	310만	DKK	2002년	75%	환경, 보건, 위생, 농업, 인프라, HRD

표 5. 계속

출연국	기탁기금	잔고	통화	협정체결	타이드 조건	선호 부문
이집트	-	-	-	1996년	100%	-
핀란드	843,416	54만 7,821	Euro	2001년	0%	환경, 인구, 빈곤퇴치, 인권
프랑스	335만	189만	Euro	2000년	75%	금융
인도	400만	-	USD	1998년	95%	-
이태리	200만 (2003년 추가)	260만	Euro	1998년	50%	사회 경제 부문
일본	1,738,54 6,000	423,971,402	JPY	1994년	0%	-
한국	200만	146만	USD	1998년	90%	-
나이지리아	2,500만	2,317만	USD	2004년	80%	과학, 기술, 보건, 비즈니스, 금융, 농업
노르웨이	500만	130만	NOK	-	60%	-
포르투갈	300만 (Euro)	64만 9,000(USD)	Euro/ USD	1987년	100%	농업, 교육, 보건, 인프라
스페인	140만	-	Euro	1995년	필요시 언타이드	공업, 기자재, 수송
스웨덴	4,000만	790만	SEK	1998년	80%	환경, 공업, 에너지, 바이오 기술
스위스	400만	-	SF	1998년	100%	농업, 환경, 사회, 보건

자료: AfDB(2006), Memorandum, Proposal for Technical Cooperation Fund Reform at the African Development Bank.

■ 최근 AfDB의 전략적 우선분야인 민간부문, 거버넌스, 재생에너지, 환경, 수자원 등 특수목적에 대한 프로그램식 신탁기금이 각광을 받으며 현재 7개의 프로그램식 신탁기금을 운영함.

- 단일국가 기금인 벨기에 Wallon Region 민간부문 개발기금, 일본의 아프리카 민간부문 지원 기금(FAPA: Fund for African Private Sector Assistance), 한국 KOAFEC 기금 등이 포함됨.

- 다자출연 기금인 NEPAD(New Partnerships for Africa's Development) 기금, 노르웨이·스웨덴·덴마크·핀란드가 출연한 노르딕 거버넌스 신탁기금, 네덜란드의 빈곤퇴치(PRSP: Poverty Reduction Strategy Paper) 기금, 수자원 협력 프로그램(Water Partnership Programme), 아프리카 에너지 소규모 사용자 지원기금(FINESSE: Financing Energy Services for Small-scale Users in Africa), 아프리카 수자원 기금(African Water Facility Funds) 등이 있음.

표 6. AfDB 프로그램식 신탁기금 현황

출연국	기탁기금	잔고	통화	협정체결	연계조건	선호 부문	
벨기에 Walloon Region	390만	248만	Euro	1999년	75% 타이드	민간부문, 농업	
NEPAD	캐나다	1,000만	-	CA	2003년	0% 타이드	IT기술, 수송, 에너지, 위생
	덴마크	300만	-	DKK	2005년		
일본 FAPA	2,000만	1,823만	USD	2006년	0% 타이드	민간부문	
네덜란드	PRSP	143만	-	USD	2001년	0% 타이드	빈곤퇴치
	FINESSE	630만	477만	USD	2002년	0% 타이드	재생에너지
	Water Sector Programme	511만	-	Euro	2002년	0% 타이드	수자원 부문
NORDIC	400만	171만	USD	2002년	0% 타이드	거버넌스	
아프리카 수자원 기금 (African Water Facility Funds)	5,974만 (출자예정 금액)	-	Euro	-	-	수자원 부문	
한국 KOAFEC 기금	500만	-	USD	2007년	0% 타이드	인프라 및 천연자원, ICT, 지식공유, HRD	

자료: AfDB(2006), Memorandum, Proposal for Technical Cooperation Fund Reform at the African Development Bank.

■ 신탁기금 기탁금이 꾸준히 증가하는 데 비해 지출액은 상대적으로 느린 증가율을 보이는데, 이는 행정 취약성, 일반기금 타이드 조건, 복잡한 공여조건으로 인한 승인 지연에서 기인하는 것임.

- 신탁기금의 사용 용도로는 컨설턴트 용역비가 전체 승인액의 2/3 정도를 차지하며 부문별로는 농업과 농촌 개발, 역량 강화와 지식 전수에 집중되어 있음.

### 나. 국가별 조달계약 수주 현황

■ 조달계약은 국제 경쟁입찰(ICB: International Competitive Bidding) 67%, 국내 경쟁입찰 (NCB: National Competitive Bidding) 15%, 사전초청(shortlists) 11%, 수의계약(Negotiated Contract) 5%<sup>14)</sup>의 비율로 구성됨.

14) AfDB Annual Procurement Report 2006, 계약분량 기준.

- 물품과 공사의 조달은 대부분 경쟁입찰을 하고 있지만, 컨설턴트 용역의 경우 기존 검증된 컨설턴트들을 초청한 후 그중에서 선정하는 사전초청 방법을 주로 사용함.

- 국가별 수주율을 보면 전체적으로는 미국, 프랑스, 캐나다 등 선진 공여국이 수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건설, 토목공사를 통한 아프리카 원조의 풍부한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한 중국의 약진이 두드러져 전체 계약 3위, 공사계약 2위를 차지하고 있음.

표 7. 국가별 조달계약 수주율

구분	전체 계약		물품 계약		공사 계약		컨설팅 용역 계약	
	국가	비중(%)	국가	비중(%)	국가	비중(%)	국가	비중(%)
1	미국	18.3	프랑스	28.8	미국	28.0	캐나다	16.3
2	프랑스	9.9	스위스	13.7	중국	11.3	프랑스	13.3
3	중국	7.4	독일	10.4	부르키나파소	7.7	부르키나파소	8.3
4	부르키나파소	6.3	스페인	9.4	모로코	6.5	세네갈	6.6
5	모로코	4.4	케냐	4.6	잠비아	5.2	남아공	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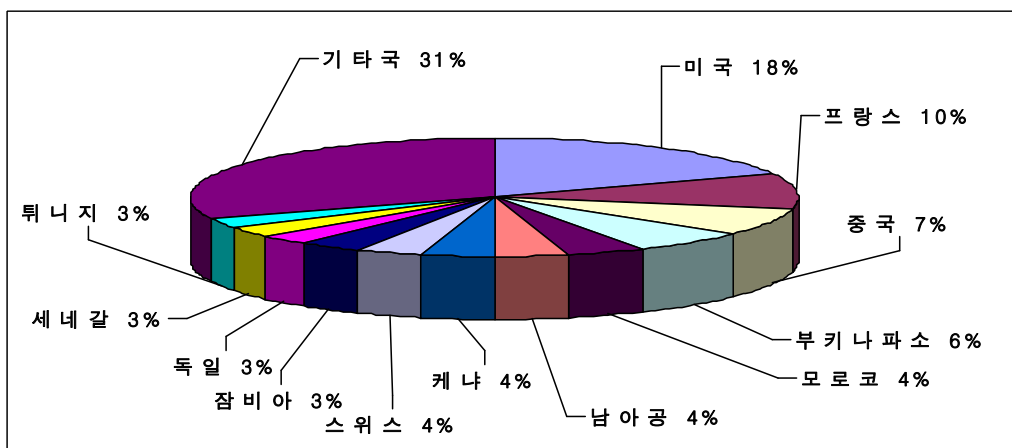
주: 2006년, 계약규모 기준.

자료: AfDB(2006), Annual Procurement Report.

- 현재 회원국 간 출자비율과 수주율은 큰 상관관계가 없음.

- 한국의 경우 한국해양수산개발연구원이 말라위 수산양식사업 수주로 2004년 용역 원조조달에서 금액기준 전체 3%를 차지한 후 수주 실적이 전무한 상황임.

그림 4. 2006년 국가별 AfDB 조달 수주율



자료: AfDB(2006), Annual Procurement Report.

- 2006년 원조조달계약은 총 1,120건이 체결되었고 평균 계약금액은 41만 615UA<sup>15)</sup>로, 타 MDB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규모임.

15) 약 61.5만 USD.

- 계약입찰에 소요되는 시간은 물품, 토목공사의 경우 평균 18.3개월, 컨설팅계약의 경우 14.5개월로, 계약 성사를 위해 매우 오랜 기간이 소요됨.

#### 4. 정책적 시사점

- AfDB는 기술협력 신탁기금 개선을 위한 3개년 전략 기획방안을 마련, 각 부문별로 3년간의 단계별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는 체계적 접근을 취함.
  - 한국은 이러한 동향에 따라 AfDB의 3개년 계획을 최대한 고려,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신탁기금 전략을 수립함과 동시에 경제·외교적 측면에서 국익에 부합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함.
- 민간부문, 거버넌스, 재생에너지, 환경 및 지속가능한 개발, 수자원, 보건, NEPAD, 빈곤퇴치 연구 등 전략적 주요 부문과 프로젝트 절차(project cycle) 관련 사업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정책 마련이 필요함.
  - 프로그램식 신탁기금으로의 전환과 함께 주요 주제와 부문에 대한 선택적 집중이 보다 강조되고 있음.
  - 한국의 경제개발 경험에 대해 아프리카 국가들의 관심이 높은바, 상대적 우위를 차지하는 빈곤 퇴치, 중소기업 육성, 기술 개발, IT 기술 개발과 활용 등의 부문에 중점을 주되 지역 상황에 맞는 개발모델 수립·전수가 중요함.
- 단발적 프로젝트보다는 중장기적인 대규모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최근 추세를 고려할 때 지난 10월 승인된 KOAFEC 신탁기금은 매우 긍정적인 움직임임.
  - 본 신탁기금을 통해서 운영될 수 있는 사업 발굴, 준비, 실행, 모니터링 및 평가 등 프로젝트 절차 전반에 있어서 한국의 관련 기관 및 컨설턴트의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1998년 설립된 한·아프리카 기술협력 신탁기금은 2006년 7월 기준 약 200만 달러 정도의 잔고로 지금까지 약 55만 달러 정도밖에 승인되지 않아 집행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임.

- 90% 타이드 조건으로 승인 지연과 한국 측의 느린 피드백, 컨설턴트 선정, 승인 지체, 언어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조치가 필요함.
- 보다 장기적으로는 원조 효율성과 파트너십 제고를 위해 강조되는 다자출연 신탁기금에도 공여국으로 참여하여 아프리카 지역에서 우수 공여국으로서 입지를 강화해야 함.
- 수원국의 원조 제도 및 운영과의 조화를 강조하는 파리선언 등 국제적 기준 도입을 통한 원조의 질적 제고와, 보다 장기적으로는 OECD/DAC 가입을 위한 기반 확보에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음.
- 다자출연 신탁기금의 동향과 절차,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우리 기업 및 개발컨설턴트의 적극적인 참여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임.
- 3개년에 걸친 단계적 개선 목표를 고려한 점진적인 원조 언타이드화와 함께 AfDB 원조조달 시장에 대한 활발한 참가 노력 역시 병행되어야 함.
- 현재 한국의 AfDB 조달 수주율은 매우 미미하므로 과거 아프리카 국가 원조사업 경험으로 높은 수주율을 점유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를 참고해야 할 것임.
- 한국이 상대적 경쟁력을 보유하여 원조조달 시 국제 경쟁입찰의 경우에도 유리한 입지를 차지할 수 있는 부문에 대한 지원 강화와 전문인력 집중 육성을 통해 원조 언타이드화의 국제적 추세에 대비함과 동시에 이를 활용해야 함.
- 원조조달 절차 개선을 위한 추진 방향의 일환인 온라인 컨설턴트 등록, 모집, 관리 시스템을 신속히 파악, 활용하고 사업기회 세미나의 적극적인 참여 노력이 필요함.
- 컨설턴트 용역의 경우 경쟁입찰이 아닌 기존 검증된 인사를 초청하여 선정하는 사전초청 (shortlists) 계약을 활용하기 때문에 초기 참여 성공과 능력 검증이 중요함.